

공동체로 함께 만드는 따뜻한 전주

시, '전주시 공동체 발대식' 열고 지원사업 성공 추진 의지 다져

전주시가 올해도 시민들이 공동체를 형성해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지역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시는 지난 12일 한국전통문화전당 4층 교육실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41개 공동체 대표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전주시 공동체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우범기 전주시장이 올해 전주시 공동체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공동체 대표와 회원들을 격려했으며, 사업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다짐하는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또한 공동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업비 교부·신청·집행·정산 등 공동체별 사업 추진에 필요한 회계 및 전산 실무 교육이 진행됐다.

이와 관련 '전주시 공동체 지원사업'은 지역주민들이 공동체 가치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전주시는 지난 12일 한국전통문화전당 4층 교육실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41개 공동체 대표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전주시 공동체 발대식'을 개최했다.

사업을 추진하고, 소통과 화합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 마을공동체 분야에는 총 14개 동이 선정돼 각 동의 주요한 마을의제를 발굴하고 △마을경관 개선 △환경

보호 △행사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또한 온두레공동체 분야에서는 △사회문제 해결 △교육 △생활문화 △공예 △환경 △조경 △나눔 봉사 등 분야에서 활동할 총 27개 공동체가 선정됐

다. 시는 이들 41개 공동체에 총 2억 25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시는 이달 중 각 공동체로부터 교부 신청서를 접수한 후 사업비를 교부할 예정으로, 각 공동체들이 한 해 동안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전주시지역소통협력센터와 함께 공동체들의 사업 추진을 도울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사업 공고 시작으로 지난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체를 공개 모집했으며, 이후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총 65개 공동체를 대상으로 지난 5월 7일부터 12일까지 사전 심사와 전문가 면담 심사 등을 거쳐, 지원 대상 총 41개 공동체를 확정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자랑스러운 전주시 공동체의 주인공으로서 전주의 주역이라는 자부심과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해주길 바란다"면서 "공동체들의 열정과 노력을 통해 전주가 포용과 소통이 살아 숨 쉬는 공동체 도시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인 전주시가 경상남도 진주시가 손을 맞잡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특별한 야간 경관을 선보인다.

전주시-진주시, 문화도시 상생

19~20일 '전주단오' 축제 맞춰 진주 실크등 터널 조성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인 전주시가 경상남도 진주시가 손을 맞잡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특별한 야간 경관을 선보인다.

전주시는 오는 19일과 20일 이틀간 개최되는 '2026 전주단오' 축제 기간에 맞춰 전주덕진공원 내에 '진주 실크등 터널'을 조성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양 도시가 보유한 우수한 문화자원을 '전주 한지'와 '진주 실크'를 상호 홍보하고 지자체 간의 성공적인 연계·협력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문화 교류의 메인 콘텐츠인 '실크등 터널'은 전주시가 제공한 실크등 1000점을 활용해 전주덕진공원 내에 구조물 형식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권희성 기자

실크등 터널은 내부 통과 시 마치 빛의 터널 속에 들어온 듯한 깊은 몰입감을 선사하도록 연출된다. 시는 문화 교류를 통해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아름다운 야간 경관과 차별화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해 전주단오 축제의 시각적 완성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 문화도시 전주' 사업의 추진 성과를 대외에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 도시의 문화교류는 올 가을에도 이어진다. 구체적으로 오는 10월에는 전주의 우수한 한지 재료와 진주의 전통 유등 제작 기술을 협업해 '전주 한지 용등 유등(10점 내외)'이 제작되며, 이 유등들은 '전주한지산업대전'과 '진주유등 축제'에서 순차적으로 전시돼 영호남을 잇는 깊이 있는 문화적 공감대를 다시 한번 형성할 예정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 나들가게 소상공인 현장 목소리 청취

우범기 시장, "전북 지역 소상공인 어려움 함께 고민하고 적극 지원하겠다"

전주 소상공인 나들가게협동조합 송성호 회장과 강혜지 사무총장을 비롯한 임원진 12명은 지난 12일 오전 전주시청을 방문해 우범기 전주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과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진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주시 민생사회적경제과 정승원 과장과 민생경제팀 김정운 팀장이 함께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우범기 시장은 "최근 경기침체 장기화와 소비위축으로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이 힘을 잃지 않도록 시에서도 지원 가능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북의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격려의 뜻을 전했다.

이날 송성호 회장은 나들가게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 창고시설 구축 필요성을 건의했다.

송 회장은 "소상공인들이 대형 유통업체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공동구매와 공동물류 체계가 필수적이지만 이



전주 소상공인 나들가게협동조합 송성호 회장과 강혜지 사무총장을 비롯한 임원진 12명은 지난 12일 오전 전주시청을 방문해 우범기 전주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과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진지한 의견을 교환했다.

를 뒷받침할 저장 및 물류 공간이 부족하다"며 "공동 창고시설이 마련된다면 물류비 절감은 물론 가격 경쟁력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유통 환경 변화와 경영난, 협동조합 운영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도 폭넓게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 확대와 소상공인 중심의 실질적인 정책 마련을 요청했다.

특히 임원진들은 최근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부담 등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생존

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호소하며 보다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을 건의했다.

우범기 시장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에는 곧 전북 지역경제의 어려움"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해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송성호 회장은 간담회를 마친 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귀한 시간을 내준 우범기 시장께 감사드린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전북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주시 우주로1216, 독립출판 2기 청소년 작가 탄생

전주시립도서관 꽃심 내 트윈세대(12세~16세) 전용 문화공간인 '우주로1216'에서 전주시청 청소년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진솔한 고백이 담긴 10권의 특별한 책이 세상에 나왔다.

시는 전주시청 12세부터 16세까지의 청소년 10명이 참여해 기획과 집필, 편집, 디자인 등 독립출판 제작의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한 '트윈세대 독립출판 제작' 과정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청소년들은 지난 5월 3일부터 시작된 이 프로그램을 통해 독립출판의 개념을 배우고, 자신의 생각과 취향을 마주하며 '나만의 이야기'를 표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편집 및 디자인 과정을 거쳐 6주간 프로그램을 통해 그동안의 결과물로 자신만의 출판 시간 한 권을 완성했다.

10명의 청소년은 초등학생 6명과 중학생 4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학업 △로맨스 △종이하는 음악 △미스터리 등 다양한 주제에 나서는 색깔을 더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책을 만들어 냈다.

이렇게 완성된 작품은 전주시립도서관 꽃심 '우주로1216'에 비치될 예정으로, '우주로1216'을 이용하는 트윈세대 이용자 누구나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다. /권희성 기자

'전주 온가족 시민장터' 성황리 개최

전주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고 즐기는 소통의 장인 시민장터가 전주 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펼쳐졌다. 전주시는 지난 13일 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2026 제1회 전주 온가족 시민장터'를 개최했다.

'가족담장단: 미스터리 마켓'을 주제로 열린 시민장터는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참여형 장터로 꾸며졌다.

시민장터에서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판매·체험·놀이 프로그램과 문화 공연이 선보였다. 구체적으로는 이날 장터에는 총 24개 판매·체험 부스가 운영됐다.

판매장터에서는 생활소품과 문구류, 액세서리, 디퓨저 등 다양한 수공예품과 구운과자, 음료, 아이스크림, 솜사탕 등 먹거리가 판매돼 방문객들의 관심을 이끌어냈다.

또한 체험장터에서는 △슬라임 체험 △극서사 인형 만들기 △수달 키링 △나만의 부채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돼 어린이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외에도 행사장에서는 어린이 바이올린 공연과 난타 공연, 버블쇼 등 다채로운 문화공연도 펼쳐져 장터 분위기를 한층 북돋웠다. /권희성 기자

농·심·전·심
농민의 마음, 전주농협의 마음

대한민국 최초 농사연금 지급
대한민국 최초 농민훈장 수여

농민이 애국자입니다

전주농협